

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08, Vol. 19, No. 1, pp. 169~192.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위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수연* · 김형모**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 중 지위비행(status offence)으로 인하여 징계나 제재를 받고 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청소년 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험집단의 향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실험집단의 향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비행예방 프로그램,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적응력

* 안양시청소년쉼터 기획팀장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hkim66@hanmail.net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위해 다양하고 심한 혼란과 불안을 겪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진로문제, 이성문제, 인생관과 가치관 정립의 문제를 안고 있고 성적인 관심도 높아진다. 또한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 반응도 많으며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갈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가정교육의 상실, 학교 인성교육의 악화, 비행을 유발하는 갖가지 유해 요소의 증가,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의 혼란 등의 상황에 놓여 있는 시기이다(김성숙, 2003).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은 획일화된 교육제도와 입시위주의 교과 중심, 처벌중심의 생활지도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며, 심지어는 무단조퇴, 무단결석, 가출, 학교 중퇴 등을 촉발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특히 즉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환경과 심리적 지지기반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에게는 심리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심각한 비행을 유발시키기도 한다(차정화, 1998).

우리나라는 해마다 비행청소년의 숫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하는 학생 수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학교 내의 학생비행도 다양화되고 증가 추세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선도나 사후치료차원의 프로그램연구가 대부분이다(류소영, 1996; 임향규, 1996; 홍봉선, 1997; 고기홍, 1998; 이정희, 1998; 박병훈, 2002; 왕금미, 2005).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대상은 학교 내에서 교칙 위반, 음주, 가출 등의 비행 행동을 하여 심각한 비행행동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초기 지위비행(status offence)학생이다. 학교 중도탈락자들의 범죄율을 보면 198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퇴생 10명 중 3명이 범죄에 연루될 정도로 학교 부적응과 사회적 비행과의 연관성도 증대되고 있다(조아라, 2001.).

브룸(Borum, 2000)의 연구에서 연령-비행 곡선(age-crime)을 보면 범죄율은 12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17세경에 절정을 이루어 19세까지 지속되다가 성인초기에 급격히 하락하여 이후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죄율이 청소년기에 최고조로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비행의 연령곡선이

왜 이런 모양을 보이는가는 사실상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 난폭하게 싸움을 하며, 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인다.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상담이나 비행예방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선도나 교육위주의 지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기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비행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관련 청소년 개인과 가정의 문제이지만, 나아가서는 학교의 문제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청소년비행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비행 문제의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김선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지위비행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및 비행예방 프로그램

1. 선행연구

청소년의 비행은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되지 않으며,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회문화적 구조나 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격내적 구조의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 분석하기는 어렵다.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 가정, 지역사회, 학교생활, 교우관계, 대중매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개인적 요인 중에는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김지현, 2001). 본 연구에서는 비행의 다양한 요인 중 개인적 요인에 속하는 자아 존중감과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학교와 연관된 학교생활 적응력과 관련하여 청소년비행을 보고자 한다.

쿠퍼스미스(Coopersmith, 1967)는 자아 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평가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이 중요하고, 유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다고 보는 정도 즉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태도

속에 나타나는 자신에 대한 가치의 판단이라고 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들(최윤희, 1993; 김선남, 1994)을 보면 자아 존중감을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적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자아 존중감과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피츠와 하머(Fitts & Hammer, 1969)는 60여종의 관련연구를 고찰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이 일반청소년보다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 로젠버그(Rosenberg, 1978)의 연구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결정인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학생이 학교생활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 여건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환경 등을 그들 자신의 요구에 알맞게 변화시키거나 학생 자신이 그 여건에 바르게 수용되는 것을 의미 한다(김원순, 1995). 청소년의 부적응, 일탈 혹은 비행을 설명하는 견해는 아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중 사회 문화적 관점은 부적응 문제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관점으로 가족 및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 거주 지역,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개인의 발달에서 중요한 환경 및 대상으로 작용하는 가족 및 친구 등과의 부정적인 경험이 부적응 및 비행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양돈규, 1998).

학교생활 부적응이라 함은 '학교생활의 적응과정에 있어서 욕구 불만이나 갈등이 심하여 이로 인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생활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정의 하고 있다(이정숙, 2005). 또한 조아라(2001)는 학교가 청소년에 대한 중요한 인습적인 통제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학교로부터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이 비행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 비행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전영택(1994)은 시설에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류소영(1996)은 시립아동상담소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대처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김지은(1998)은 자아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아통제력의 하위요소로는 공격성과 충동성, 자아 존중감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조아미(1999)는 자아 존중감과 문제 행동의 관계는, 학생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심각한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 존중감이 경미한 문제행동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정희정(1999)은 자기성장 집

단 상담을 복교생들에게 실시하여 복교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 생활적응을 돕고자 한 연구를 통해, 그들의 낮은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부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복지 개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익섭(1999)의 연구에서 비행화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고, 친구관계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었고,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와 적응력이 향상되었다. 즉 비행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일정기간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의 대폭적인 상승을 보였고 이런 사실은 비행의 위험을 벗어나는 증거의 하나로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다. 차정화(1998)와 김성숙(2003)은 학교 내에서 지위비행을 경험한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이코드라마 중심의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한명수(2000)는 학교 내 징계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감능력 향상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임소영(2000)은 학교 내 폭력행동으로 집단화 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성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청소년의 비행이나 비행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예방보다는 선도나 사후치료를 목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2. 비행예방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징계를 경험하여 컴퓨터로 위탁된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청소년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상담, 집단놀이 등을 통하여 집단의 역동성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객관성과 잠재성을 발견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에 실시되었던 토래상담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형태에 최근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와 맞물릴 수 있는 음악, 미술, 놀이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사전에 2회 실시한 것을 기초로 하여 목표, 훈련내용과 기법에 대한 수정을 통하여 최종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와 간단한 내용 설명은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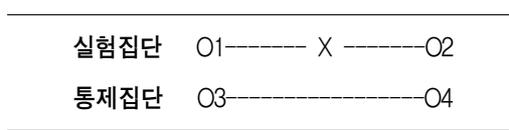
<표 1>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교시	활동주제	내 용
1	1	- 오리엔테이션	미술심리검사를 통한 집단원의 심리적 상황 탐색
	2	- 라포 형성	음악 동작활동을 통한 동기유발 및 라포 형성
2	1	- 자기탐색 (에니어그램)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보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통찰해보고, 난화게임을 통한 자신의 무의식 세계 인식
	2	- 노래심리치료	노래가사에 자신의 감정 이입 및 그 감정을 악기에 실어 연주함으로써 표출 및 해소의 효과 유도
3	1	- 에니어 해석 및 적용	다른 집단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느껴보고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계기
	2	- 적절한 감정 표현	음악 감상과 악기연주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적절한 표현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지
4	1	- 친구관계 탐색	나 자신에 대한 탐색 및 우호적인 친구관계에 대한 학습
	2	- 노래심리치료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 인지 및 칭찬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경험
5	1	- 가족관계	동그라미 가족화를 통한 가족관계 이해 및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 이해
	2	- 가족의 소중함	역할 바꾸기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가족입장 이해하기
6	1	- 사회관계 이해	플리츄 작업을 통한 사회(학교)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승화 유도
	2	- 감정 표출	난타형식의 즉흥연주를 통한 감정 해소 및 긍정적 메시지의 설득의 효과 기대
7	1	- 표현하기	집단원 각자의 무의식적 동기나 의식적 소망을 표현
	2	- 대인관계	음악극 장르 경험을 통해 자신감 고취 및 털실활동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기술향상 도모
8	1	- 정리, 평가	집단원이 전시회 및 소공연을 함께하고 이별왈츠로 마무리
	2	- 자신감	8회동안의 활동에 대한 정리 및 자발적 평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학교에서 지위비행의 결과로 징계를 받아 안양시청소년쉼터에 위탁된 쉼터 이용 중고등학생이다.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들 중 연구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고,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실험집단 16명과 통제집단 16명을 선정하였다. 16명의 실험집단은 2006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1 회당 90분의 비행예방 프로그램에 총 8회 참여하였다. 연구 설계로는 유사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 중 비동일 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s Design)를 사용하였다.



X는 비행예방 프로그램

O1, O3: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적응력 사전검사

O2, O4: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 적응력 사후검사

[그림 1] 연구 설계

2. 연구가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

<가설 2>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3. 측정도구

1) 자아 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쿠퍼스미스에 의해 개발된 자아 존중감 설문지(Self-Esteem Inventory)를 신종순(1990)이 번역하고 김지현(2001)이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의 자아존중감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자아존중감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자신감과 자아가치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또래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신뢰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자신의 친구 사귀는 능력으로 측정하였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생활에서 자기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으며 원만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로 측정하였고, 학교의 자아존중감은 교사나 동급생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5로 나타났다.

2) 학교생활 적응력

본 연구에서는 임정순(1993)의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검사지'를 참고로 류윤희(1994)가 중고등학교에 알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력은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의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조화로운 관계정도, 도움을 청하려는 정도, 꾸중에 대한 반응, 긍정적 감정표현의 적절성 여부로 측정하였고, 교우관계는 친구와의 조화로운 관계정도, 학급생활의 적극성 여부, 친구에 대한 관심 여부로 측정하였다. 학교수업은 수업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공부할 때의 어려움,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로 측정하였고, 학교규칙은 학교생활의 여러 장면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항상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생활 적응력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3$ 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소감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실험집단 참가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진행자 및 진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참가자 자신들의 변화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인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분석 결과

1)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표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와 여자 각각 50.0%로 나타났다. 연령은 실험집단은 15세가 가장 많았고, 통제집단은 13세가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모두 기독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가정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형제자매에서는 둘째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함께 살고 있음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실험집단은 고졸, 대졸, 중졸의 순이었고, 통제집단은 고졸, 국졸이하, 대졸의 순이었다.

<표 2> 표본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집 단		합 계
		실험집단	통제집단	
성 별	남자	8(50.0)	8(50.0)	16(50.0)
	여자	8(50.0)	8(50.0)	16(50.0)
연 령	12세	0(0.0)	2(12.5)	2(6.3)
	13세	0(0.0)	7(43.8)	7(21.9)
	14세	6(37.5)	5(31.3)	11(34.4)
	15세	8(50.0)	1(6.3)	9(28.1)
	16세	1(6.3)	1(6.3)	2(6.3)
	17세	1(6.3)	0(0.0)	1(3.1)
종 교	기독교	9(56.3)	12(75.0)	21(65.6)
	천주교	2(12.5)	1(6.3)	3(9.4)
	불교	4(25.0)	3(18.8)	7(21.9)
	기타	1(6.3)	0(0.0)	1(3.1)
합 계		16(100.0)	16(100.0)	32(100.0)

<표 3> 표본의 가정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구 분		집 단		합 계
		실험집단	통제집단	
형제자매	외동	3(18.8)	1(6.3)	4(12.5)
	첫째	0(0.0)	6(37.5)	6(18.8)
	둘째	11(68.8)	7(43.8)	18(56.3)
	셋째 이상	2(12.5)	2(12.5)	4(12.5)
결혼상태	함께 살고 있음	9(56.3)	8(50.0)	17(53.1)
	이혼	2(12.5)	3(18.8)	5(15.6)
	별거	1(6.3)	3(18.8)	4(12.5)
	재혼	3(18.8)	0(0.0)	3(9.4)
	사망	1(6.3)	2(12.5)	3(9.4)
생활정도	상	0(0.0)	1(6.3)	1(3.1)
	상중	2(12.5)	0(0.0)	2(6.3)
	중	9(56.3)	9(56.3)	18(56.3)
	중하	4(25.0)	6(37.5)	10(31.3)
	하	1(6.3)	0(0.0)	1(3.1)
부학력 (N=27)	국졸이하	1(7.1)	2(15.4)	3(11.1)
	중졸	2(14.3)		2(7.4)
	고졸	7(50.0)	8(61.5)	15(55.6)
	대졸	4(28.6)	2(15.4)	6(22.2)
	대학원이상		1(7.7)	1(3.7)
모학력 (N=28)	국졸이하		1(6.7)	1(3.6)
	중졸		1(6.7)	1(3.6)
	고졸	10(76.9)	10(66.7)	20(71.4)
	대졸	2(15.4)	2(13.3)	4(14.3)
	대학원이상	1(7.7)	1(6.7)	2(7.1)
합 계		16(100.0)	16(100.0)	32(100.0)

2)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자아 존중감에 대한 실험 처치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t=-.537$ 로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실험 처치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t=.301$ 로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실험 처치 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4>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자아 존중감	실험집단	16	3.12	.43	-.537
	통제집단	16	3.19	.35	

* $p<.05$, ** $p<.01$

<표 5>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학교생활 적응력	실험집단	16	3.11	.39	.301
	통제집단	16	3.06	.51	

* $p<.05$, ** $p<.01$

2. 개입에 따른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의 변화

1) 통제집단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

통제집단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의 사전/사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통제집단에서 자아 존중감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집단에 대해서 학교생활 적응력의 사전/사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통제집단에서 학교생활 적응력의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표 6>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통제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자아 존중감	사전	16	3.19	.35	-1.081
	사후	16	3.26	.35	

* p<.05, ** p<.01

<표 7>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통제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학교생활 적응력	사전	16	3.06	.51	-.617
	사후	16	3.10	.41	

* p<.05, ** p<.01

2) 실험집단의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

(1)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

실험집단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t=-3.803$ 으로서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평균을 보면 사전이 3.12, 사후가 3.40으로 사전보다는 사후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실험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8> 자아 존중감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실험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자아 존중감	사전	16	3.12	.43	-3.803**
	사후	16	3.40	.29	

* p<.05, ** p<.01

위의 분석 결과와 연관된 참가 청소년의 소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 자신에게 불만이 많았다. 외모도 그렇고 돈도 없고 주변을 봐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실에서 인정할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소감 A)

“내가 가진 조건 속에서 열심히 해야겠다. 당장 예고를 가고 싶다. 예고를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하다가 그만둔 그림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러면 학원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해야 한다. 갑자기 꿈이 막 생긴다. 신난다.” (소감 B)

“전에는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재수 없었는데, 이제 나를 왜 싫어할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요. 이런 내가 적응 안 되게 좀 웃기지만.....” (소감 C)

자아 존중감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은 상승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9> 자아 존중감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실험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전	16	3.18	.37	-3.816**
	사후	16	3.36	.34	
사회적 자아존중감	사전	16	3.31	.44	-3.242**
	사후	16	3.74	.45	
가정적 자아존중감	사전	16	2.96	.82	-2.270*
	사후	16	3.36	.49	
학교의 자아존중감	사전	16	3.03	.43	-1.093
	사후	16	3.16	.38	

* p<.05, ** p<.01

(2)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

실험집단에 대해서 학교생활 적응력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t=-4.236$ 으로서 유의수준 1%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평균을 보면 사전이 3.11, 사후가 3.35로 사전보다는 사후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실험집단의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10>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실험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학교생활 적응력	사전	16	3.11	-4.236**
	사후	16	3.35	

* $p<.05$, ** $p<.01$

학교생활 적응력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교우관계, 학교규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관계와 학교수업은 평균은 상승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1> 학교생활 적응력 하위영역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검증(실험집단)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교사관계	사전	16	3.07	-.716
	사후	16	3.14	
교우관계	사전	16	3.38	-3.184**
	사후	16	3.78	
학교수업	사전	16	3.07	-.490
	사후	16	3.13	
학교규칙	사전	16	2.91	-4.730***
	사후	16	3.34	

* $p<.05$, ** $p<.01$

위의 분석 결과와 연관된 참가 청소년의 소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처벌만 하는 선생님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나도 비슷했을 것 같다. 선생님들도 힘들 수 도 있겠다고 생각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참 새롭다.” (소감 D)

“학교가 재미없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재미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니 편안하다. 새로운 경험이다.” (소감 E)

“우리 이제 침도 안 뺏어요. 실은 반 친구들이 교실바닥에 침 뺏는다고 아주 싫어했 었거든요.” (소감 F)

“한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물어 봐 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소감 G)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들을 이해 할 수 도 있을 텐데.....” (소감 H)

3.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향상도

1) 자아 존중감에 대한 향상도 검증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t=2.342$ 로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2> 자아 존중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 차이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자아 존중감	실험집단	16	.28	.29	2.342*
	통제집단	16	.06	.23	

* $p<.05$, ** $p<.01$

자아 존중감의 4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3>과 같

다.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의 자아존중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와 연관된 참가 청소년의 소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빠는 매일 술 마시고 엄마를 때려요. 엄마가 도망 갈까봐 겁이 나요. 저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욕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래서 기출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할머니는 제가 아들이 아니어서 그렇대요. 학교 다니는 것이 어떨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날은 그래도 덜하지만 학교에서도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졸업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소감 I)

<표 13> 자아 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 차이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일반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6	.18	.19	2.120*
	통제집단	16	.04	.18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6	.42	.52	2.592*
	통제집단	16	.01	.35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6	.39	.69	.443
	통제집단	16	.28	.63	
학교의 자아존중감	실험집단	16	.13	.48	1.397
	통제집단	16	-.09	.42	

* p<.05, ** p<.0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자아 존중감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의 효과성은 평균 점수의 차이는 4개의 하위영역에 있었고, 특히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학교의 자아존중감은 대상자 개인 사례 등에서는 향상된 모습을 추정할 수 있었는데, 통계적 유의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2)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향상도 검증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t=2.365$ 로서 유의수준 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14>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 차이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학교생활 적응력	실험집단	16	.24	.22	2.365*
	통제집단	16	.03	.25	

* $p<.05$, ** $p<.01$

학교생활 적응력의 4개 하위영역에 대해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사관계와 학교수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학교생활 적응력의 하위영역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 차이 검증

구 분		N	Mean	Std. Deviation	t
교사관계	실험집단	16	.07	.39	.214
	통제집단	16	.03	.43	
교우관계	실험집단	16	.39	.50	2.947**
	통제집단	16	-.07	.39	
학교수업	실험집단	16	.06	.51	-.208
	통제집단	16	.10	.54	
학교규칙	실험집단	16	.42	.36	2.827**
	통제집단	16	.08	.32	

* $p<.05$, ** $p<.01$

위의 분석 결과와 연관된 참가 청소년의 소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공부를 잘하나 얼굴이 잘생겼나 싸움도 잘 못해요. 하나 잘하는 게 없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깐 그래도 학교는 다니고 싶어요. 학교에서 혼내지 않고 금연프로그램을 해 준다면 참가 해 보고 싶어요.” (소감 J)

“프로그램 처음 들어갈 때는 모두 미웠는데 지금은 몇 명 외에는 견딜 만해요. 편지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말썽꾼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다 싶어요. 웃기지만 생일잔치 같은 거 초대 받아서 가보고 싶어요.” (소감 K)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학교생활 적응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의 효과성은 특히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교사관계와 학교수업에 대한 부분은 참가자들의 소감문에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낸 부분이다. 이것은 짧은 시간 동안 실시된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가지는 한계성과 연관 지어볼 수 있다. 하지만 참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권유하겠다고 한 소감도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적 검증을 위한 연구 설계는 실험집단과 동질한 특성을 갖는 통제집단을 활용한 비교연구로 이루어졌다. 또한 집단과정을 서술한 소감 사례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첫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자아 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일반적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해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 2>는 지지되었다. 학교생활 적응력의 하위영역에 대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향상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우관계와 학교규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학교에서 지위비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쉼터에 위탁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행예방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 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로젠버그(1978)의 자아 존중감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결정인자라는 결론과 일치한다. 아울러 이익섭(1999)의 연구에서 비행화 가능 성이 있는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 존중감의 대폭적인 상승을 보였고, 이것을 비행에서 벗어나는 증거의 하나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들 중에서 무작위 배정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실험집단과 유사 한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비동일 통제집단설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의 결과, 두 집단 간에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청소년들에게 단기간에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이 향상되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지위비행의 특성상 습관화되고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프 로그램 실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의 비행행동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끝으로 청소년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비행 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돕는 것은 우리사회 공동의 책임이자 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 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예방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학교 공간 안에서 많이 진행될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

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실천적 의미가 증가된 청소년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평가 도구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프로그램 시간 내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별 참여자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는데, 개별 참여자와 진행자의 합의 아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측정지표를 추가로 설정한다면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와 변화 동기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정과 학교생활로 연결할 수 있는 사후 지도(aftercare)가 필요하다. 집단 프로그램은 짧은 기간 동안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효과를 학교나 가정생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에서는 부모와 교사와의 협조체계를 시도하였는데, 프로그램 참여 동기나 변화 동기를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조체계를 이용한다면 비록 참여 동기가 낮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원 및 인력양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행예방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참여자들의 소감을 통하여 주변에 알리겠다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학교 안에서 다시 한 번 적응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피력 하였다. 즉 현재 학교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하여 학교부적응 청소년으로 낙인찍히기 전부터 이러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관련이 있는 자아 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의 실천이 요구된다. 선도적 기능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부모, 지역사회와 상호 협력하여 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비행예방 프로그램의 연구에 대한 투자와 연구 및 실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기홍(1998). 보호관찰 수강명령 대상자를 위한 비행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제주청소년연구, 제3호, pp. 18-22.
- 김선남(1994). 청소년비행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본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2003).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숙(2003). 사이코드라마 활용 집단상담이 비행여고생의 사회적 유능성, 학교 적응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순(1995). 학습자들의 학교적응과 불안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1998).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소영(1995).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병훈(2002). 심리극이 비행청소년의 충동성, 공격성 그리고 정서변화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 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돈규(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왕금미(2005).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우영(2000). 청소년 비행의 원인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익섭(1999). 청소년 비행화 과정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7권, pp. 381-405.
- 이정숙(2005). 학교 중도 탈락 청소년들의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사회 복지적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8). 비행청소년을 위한 심리극과 사회극 프로그램의 상담효과 요인 및 회기성과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소영(2000).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순(1993). 아동의 의존성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향규(1996). 비행 정서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술요법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영택(1994). 자아개발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1999). 자기성장 집단상담이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라(2001). 중·고등학교 학업중퇴생 증가의 원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1999).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호, pp. 13-15.
- 차정화(1998). 비행여고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 중심의 집단프로그램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1993).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이 자기표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수(2000).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공감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1997). 청소년비행 자아개념강화를 위한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 개발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2003). 사이코드라마 활용 집단상담이 비행여고생의 사회적 유능성, 학교적응 및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orum, R.(2000). Assessing Violence Risk among You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10, pp. 1268-1288.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Fitts, W. & Hammer, W.(1969). *The self concept and delinquency*. Nashville: Counselor Recordings and Tests.

Rosenberg, F, R. & Rosenberg, M.(1978). Self-esteem and delinquenc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7 No. 3, pp. 279-794.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a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Residing at a Youth Shelter

Lee, Soo-Yeon* · Kim, Hyung-M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a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s who were being reprimanded for status offences and were experiencing at school life. Exposure to th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appeared to have a number of effects. Firstly,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erms of self-esteem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ly,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erms of both adaptation to school life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this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improved both self-esteem and the ability of these adolescents to adapt to school life at the youth shelter.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delinquency prevention program,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투고일 : 11월 24일, 심사일 : 2월 4일, 심사완료일 : 2월 20일

* Anyang Youth Shelter

** Kyonggi University